

하용조 목사의 짧은묵상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 예수님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외적인 데 있지 않고 내적인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대기를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명함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지위도, 재산도, 능력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신앙은 영적인 것이며 내적인 것입니다.
내적인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적인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이 무섭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병든 것입니다.

사람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두려워할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께 대한 나의 영적인 태도가 어떠하냐가 나를 결정합니다.

- 하용조